

# “심침호모(深簷胡帽)” 考:

## 몽골제국 한 시대를 풍미한 女眞식 모자의 변천사

장가 (張佳) 복단대학 문사연구원  
(초고, 인용 금지)

**초론:** 명나라 홍무 연간에 반포한 “호복(胡服)” 금지령 중에는 원나라 때 유행했던 “심침호모(深簷胡帽)”를 명시하여 언급한 대목이 있다. 원나라 시기의 각종 자료를 통하여 고찰해 보면, 당시 시대적 특징을 반영한 이 모자 양식이 바로 “만립(幔笠)”(혹은 만립[縵笠], 방립[方笠], 사각립[四角笠子]으로도 부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만립은 원래 금나라 여진족의 복식이었으나 후에 몽골인들에 의해 받아들여졌으며 몽골의 정복 활동을 통하여 중국, 고려, 중앙아시아 심지어 페르시아 지역까지 널리 전해지게 되었다. 만립은 군주로부터 관료, 문인, 서민 등 사회 각 계층 사람들에게 널리 애용된 모자였다. 하여 원이 멸망하고 명이 건립된 후, 만립은 중국이 원나라에 의해 “오랑캐화(胡化)”된 중요한 표징으로 한족 사대부들의 눈에 비쳐졌으며 그뒤 신속하게 역사 무대에서 사라지게 된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된 후, 한반도에서도 만립은 역시 비슷한 역사적 운명을 맞게 되었다.

만립은 선명한 시대적 특징을 지닌 복식이지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원나라 복식에 대한 연구는 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였고 그로 인하여 명나라 모자 양식과 혼동하게 되는 결과까지 낳았다. 만립에 대한 연구는 여러 가지 이미지 자료의 연대를 판정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역사에서의 만립의 유행과 소멸에 대한 연구는 한 시대를 풍미한 “몽고풍” 복식의 흥망성쇠를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며 동아시아 유가 지식인들의 “호한(胡漢)”, “화이(華夷)”관념의 변천 과정 또한 엿볼 수 있게 한다.

### 1. 서론: 한 문헌자료에 대한 교감(校勘)에서부터

홍무 원년 2월 임자[壬子](1368년 2월 29일), 즉위한지 38일 밖에 안된 명태조 주원장(1328-1398)은 역사상 유명한 “호복”<sup>1</sup> 금지령을 반포하여 신하와 백성들로 하여금 “복의관여당제(復衣冠如唐制)” 즉 의관을 당나라 제도 대로 회복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로써 새로운 왕조가 문화적으로 “중국정통”의 계승자임을 표명하고자 하였다. <명태조실록> 에서는 이 칙령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詔復衣冠如唐制。初，元世祖起自朔漠以有天下，悉以胡俗變易中國之制。

<sup>1</sup> 본문에서 사용되는 “호복”, “호화”, “화이” 등 어휘는 표현적 편의를 위하여 역사적 관습을 따른 것일 뿐 다른 어떠한 가치적 편향을 내포하고 있지 않음을 밝혀둔다.

士庶鹹辮髮椎髻，深襜胡俗，衣服則為袴褶窄袖及辮線腰褶；婦女衣窄袖短衣，下服裙裳，無複中國衣冠之舊。甚者易其姓字為胡名，習胡語。俗化既久，恬不知怪。上久厭之。至是，悉命複衣冠如唐制。……不得服兩截胡服，其辮發椎髻、胡服、胡語、胡姓一切禁止。斟酌損益，皆斷自聖心。於是百有餘年胡俗，悉複中國之舊矣。<sup>2</sup>

이는 중국의 근세문화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헌 기록인 바 원사와 명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에 의해 빈번히 인용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칙령에서 언급하고 있는 복식 명칭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필자의 짧은 식견으로 봤을 때 아직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 오늘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역사연구소 교정본 <명실록>은 명칭 시기의 여러 필사본들을 통합한 판본으로서 비록 교감을 거쳤다고는 하나 여전히 적지 않은 오류가 남아 있다. 이 칙령 중에도 문자상 모순되는 점들이 여럿 있으나 적당한 교감과 소통이 닿지 이루어지지 못하여 아쉽다.

예를 들어 “심침호속(深襜胡俗)”이란 이 글귀를 보자. <홍무정운> 등 자서의 해석에 의하면 “襜” 자는 고대 복식 중의 “폐슬(蔽膝)”에 해당하는 것<sup>3</sup> 즉 무릎을 가리는 정도 길이의 짧은 두루마기 비슷한 옷으로서 이 문장에서는 그 뜻이 맞물리지 않는다. <태조실록교감기>에서는 이 대목에 이르기를 “옛 교정본에서는 ‘俗’을 ‘帽’라 하였다” 라고 하고 있다<sup>4</sup>. 하지만 “深襜胡帽” 역시 문맥상 난해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다행인 것은, 명나라 가정(嘉靖) 연간으로부터 각 조대의 <실록>은 궁으로부터 필사되어 나오기 시작하였으며 명말에 이르러서는 <실록>을 필사하여 여러 가지 사서를 편수하는 것이 사가들 중에서 일시적인 풍조를 이루었다. 그 중 명나라의 주변종정(周藩宗正) 주목결(朱睦㮮, 1517-1588)은 홍무 조정의 정사를 분류, 찬록하여 <성전(聖典)>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실록>의 이 대목을 인용하면서 “深簷胡帽”이라 기록하고 있다<sup>5</sup>. 가정 연간의 <선부진지(宣府鎮誌)>와 고염무(顧炎武)의 <일지록(日知錄)>에서도 같은 구절이 인용되어 있는데 모두 “深簷胡帽”으로 적고있다<sup>6</sup>. 이 밖에도 칙령의 상하 문맥으로 판단해 볼 때,

<sup>2</sup> <明太祖實錄> 권 30, 대만중앙연구원 역사연구소 교정본, p525.

<sup>3</sup> 宋濂 외 편, <洪武正韻> 권 6.

<sup>4</sup> <明太祖實錄校勘記>, p103. <교감기>에서는 이 대목을 “胡俗衣服”이라 하였는데 이 역시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

<sup>5</sup> 朱睦㮮, <聖典> 권 9 <易俗>, <四庫全書存目叢書> 史部 제 25 책, 제 342 페이지에 수록됨.

<sup>6</sup> 嘉靖 <宣府鎮誌>, <中國方誌叢書·塞北地方·察哈爾省>에 수록, 臺北成文出版公司, 1970, 권 20, p216;

“변발추계(辮髮椎髻)”는 원나라 때의 머리 양식을, “고습착수(袴褶窄袖)”는 의상 양식을 묘사하고 있으므로 “深簷胡帽”가 원나라 때의 모자 양식을 뜻하고 있다고 보는 게 의미적으로도 적절하다. 이상의 여러 점을 감안할 때 통행본 <명태조실록> 중의 “호복” 금지령에 나오는 “深簷胡俗”이란 글귀는 “深簷胡帽”로 교정함이 마땅하다. “簷”은 “簷”(異體字는 ‘檐’)의 형태적 오류이며 “俗”은 위 문장에 나오는 “胡俗”의 영향으로 잘못 옮긴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심침호모”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자 양식을 의미하는 것일까? 원나라 시기 어느 정도 유행되었을까? 과연 명나라의 “호복” 금지령과 함께 민중의 일상생활 속에서 사라져버린 것일까? 이러한 추가적인 질문들은 단순히 문자적 교감으로써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원명 시기의 역사 자료, 특히는 당시의 사회생활 실상을 보여주는 이미지 자료들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 2. 명칭의 정정: 원나라 “와릉모(瓦楞帽)”에 대한 잘못된 고증

한자로 볼 때 “심침호모”는 “深簷” 즉 “챙이 깊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자임을 알 수 있다. 원나라 때의 이미지 자료에 대한 고찰해 보면, 우리는 이런 유형의 독특한 모자가 당시 상당히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중국복식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일찌감치 이러한 사실에 주의를 돌렸다. 심종문(沈從文, 1902-1988) 선생의 <중국고대복식연구>(1981, 홍콩 초판)에서는 원나라 지순(至順) 연간 각본의 <사림광기(事林廣記)>에 기재된 “타쌍육도[打雙陸圖]”(그림 1 참조)를 고증하면서 최초로 그림 속의 관리가 쓰고 있는 챙이 깊고 모서리가 네 개인 네모난 모자를 “사방와릉모(四方瓦楞帽)”라고 명명하였다<sup>7</sup>. 심 씨



그림 1

의 이 저서는 중국복식사 연구를 개척한 작품으로서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는데 바 그 이후의 복식사 저서들은 줄곧 “와릉모”라는 명칭을 답습하였다. 다만 훗날 “사릉(四楞)” 간혹 “육릉(六楞)”의 양식도 발견되었기에 연구자들

陳垣, <日知錄校注>, 安徽大學出版社, 2007, 권 28, p1624.

<sup>7</sup> 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一四六<元代玩雙陸圖中官僚和僕從>, 上海古籍出版社, 2011, p535.

을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릉와릉모”, “육릉와릉모”와 같은 명칭을 만들어냈다.<sup>8</sup>

중국 고대의 명물(名物) 연구에 있어서의 난제는, 이미지 자료나 출토된 유물 자체에는 일반적으로 명칭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하여 많은 물품들은 그 명명이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로 되고 있다. 확실한 문헌 자료와 대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연구자들은 흔히 그 형태나 외관상 특징에 따라 명명하는 것을 일시적인 해결책으로 삼았다. 사실상 “와릉모”라는 명칭은 원나라 때의 어떠한 문헌에서도 찾을 수 없는 바, 심 씨가 이렇게 이름 지은 것도 일종의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았다. 다행인 것은 일본에서

복각한 명조 홍무 4 년본 <괴본대상사언잡자(魁本對相四言雜字)> (현존하는 제일 오래 그림식 식자 교과본) 중에서는 이런 모자 양식에 대해 분명하게 “幔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sup>9</sup>. 원나라 문헌에서는



그림 2

이 모자를 “縵笠”이라고도 하였는데 그 형태가 네모나서 다른 모자들과는 뚜렷이 구별되어 “방립”이라고도 하였다. 또한 “챙이 깊은(深簷)” 그 독특한 외형 때문에 원나라 사람들의 문장에 적잖게 등장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왕화경(王和卿)은 그 소령(小令) 산곡 <天淨沙·咏秃>에서 만립을 써서 대머리를 감춘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笠兒深掩過雙肩，頭巾牢抹到眉邊。款款的把笠簷兒試掀，  
連慌道一句：“君子人不見頭面”。<sup>10</sup>

곡 중에 나오는 “깊이 눌러 쓴 갓, 두 어깨를 가리네(笠兒深掩過雙肩)”라는 표현은 “챙이 긴” 만립의 특징에 대한 과장된 묘사임이 틀림없다.

여태껏 지면을 들여가며 설명한 것들이 만약 “만립”(혹은 방립)이라는 역사적 본래 명칭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전혀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심종문이 만립의 명칭을 임시방편으로 “(사방)와릉모”로 정한 것이 도리어 명대복식사 심지어는 원명사회문화사의 연구 방향을 크게 잘못 유도하였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와릉모”라는 명칭이 지금까지 발견된 원나라 문헌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지만 명나라 말기의 문헌 중에서는 대량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

<sup>8</sup> 趙剛 외, <中國服裝史>, 清華大學出版社, 2013, p117.

<sup>9</sup> <魁本對相四言雜字>, <和刻本中國古逸書叢刊> 제 15 책에 수록, 鳳凰出版社, 2012, p344.

<sup>10</sup> 楊朝英 편찬, <朝野新聲太平樂府> 권 3, 中華書局, 1958, p110.

다. 명나라의 와릉모는 그 꼭대기가 접혀진 모양이 기와를 닮았다고 하여서 붙여진 이름으로서 명말 인물화 중에서 아주 많이 발견된다(그림 3 참조, 증경[曾鯨, 1568-1650]이 그린 장경자 초상화). 심씨의 <중국고대복식연구>가 거대한 영향력을 미치기 이전, 명물사전 중 “와릉모”에 대한 해석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예를 들면 화부(華夫) 외 편저 <중국고대명물대전(中國古代名物大典)>(제남출판사, 1993년) 중에는:

瓦楞帽，省稱“瓦楞”，一種頂部折疊如瓦楞的帽子，明代平民所戴。<sup>11</sup>

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심 씨 이후의 복식사 관련 저작들과 최근 출판된 명물사전들에서는 많은 경우 명나라의 와릉모를 원나라 때의 만립으로 간주하



그림 3

는 문제가 존재한다. 구체적인 사례로 <중국문물대사전>(중국문물학회전문가위원회 편저, 2008년)에서는 “와릉모” 조항에서 “금, 원 시기 이미 있었고 명나라 때 사대부들과 백성들이 착용하였다”라고 함으로써 고찰과 논증을 거치지 않은 채 “와릉모”의 옛 해석과 심 씨의 연구 성과를 뭉뚱그려 하나로 만들어 버렸다(필자의 아는 바로는 현재까지 금원 시기 문헌 중에서 명나라 양식의 와릉모를 발견한 예가 없다). <중국설계전집·복식유편>(장추핑 외 편저, 2012년)에서는 “원대 와릉모” 조항에서 더 많은 내용을 혼합하여 “북방 유목민족 중에서 유행하던 모자 양식이며 명나라 때에 그대로 받아들였다... 명나라 때에 와릉모는 평민들이 착용하였다”라고 하였으며 각종 문헌을 인용하면서 와릉모가 명나라 때 유행하였음을 증명하고자 하였다<sup>12</sup>. 이외에도 유사한 혼용 사례들이 많으나 지면상 관계로 일일이 열거하지 않기로 한다.

“와릉모”에 대한 명명 오류는 원명사회문화사의 연구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었다. 원나라가 중국사에서 가지는 특수한 지위로 말미암아, 원나라가 명나라에 대한 영향은 줄곧 학계에서 주목받는 과제 중 하나였다. 적지 않은 연구에서는 명나라 말기에 와릉모가 유행한 것을 문화적인 시각

<sup>11</sup> 华夫 외 편찬, <中國古代名物大典>, 濟南出版社, 1993, p529.

<sup>12</sup> 張秋平 외 편찬, <中國設計全集·服飾類編>, 商務印書館, 2012, p55; 黃能馥 외 편찬, <中國服裝史>, 中國旅遊出版社, 1995, p197; 이외에도 지금까지 명나라 복식사 연구에 있어서 최고의 저술이라 할 수 있는 董進의 저서 <大明衣冠圖誌> 역시도 이 오류는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서 아쉽다(北京大學出版社, 2016, p316).

에서 원나라의 영향력이 지속되고 “호풍(胡風)”이 유행한 전형적인 증거로 보아왔다.<sup>13</sup>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볼 때, 이러한 관점은 그야말로 원나라 만립을 명나라 와릉모와 혼동하여 생긴 해프닝이 아닐 수 없다.

### 3. 원류: 만립의 기원 및 아시아에서의 전파

홍무 원년의 금지령은 “심침호모”로 하여금 “몽골”이라는 수식어가 계속 따라붙게 하였다. 하지만 그 기원으로 놓고 볼 때 만립은 원나라 시기에 유행되었지만 몽골 복식에서 유래된 것은 아니다. 고고학적 자료를 검색해 보면 이런 유형의 모자 양식이 금나라 시기에 이미 중원지구에서 나타났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현존 자료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확실한 만립 이미지가 출현한 것은 산서성 고평(高平) 이문(李門) 촌에서 발견된 금나라 정릉(正隆) 2년 석각 “여진인악무도”(그림 4 참조)이다. 이 이미지들은 농후한 여진 풍격을 띠고 있는 바 그중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앞머리를 밀고 태를 뺏으며 뾰족신을 신고 접섭대(蹠躩帶, 옥으로 만든 띠의 일종)를 띠고 있으며 춤과 음악에 피리와 북 만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양송 시대 문헌 속의 여진인에 대한 묘사와 일치하다.<sup>14</sup> 다만 만립의 모자 끝이 뾰족



그림 4

한 것이 원나라 때의 일반적인 만립 양식과는 다른 점을 보인다. 원나라 때 보편적이었던 방형 만립은 금나라 대안(大安) 2년(1210)의 것으로 추정되는 산서성 후마동기묘(侯馬董玘墓)의 벽돌 조각에서 확인할 수 있다(그림 5 참조, 윗부분에 모자가 있음).

<sup>13</sup> 羅璋, <漢世胡風: 明代社會中的蒙元服飾遺存研究>, 수도사범대학 석사학위 논문, 2012, p24-26.

<sup>14</sup> 이 이미지에 대한 소개는. 景李虎, <金代樂舞雜劇石刻的新發見>, <文物> 1991년 제 12기에 수록, 34-37 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 보고서 역시 선충원의 영향을 받아 그림 중의 만립을 “와릉모”로 적었다. 여진인들은 한족 문화를 대거 수용하기 이전에는 사용한 악기들이 비교적 단순하였다. <三朝北盟匯編>에 이르기를, “그들의 음악은 오직 북과 피리 만을 사용하며, 그들의 노래는 자고(鷓鴣)의 곡조 밖에 없다” 라고 하였다.



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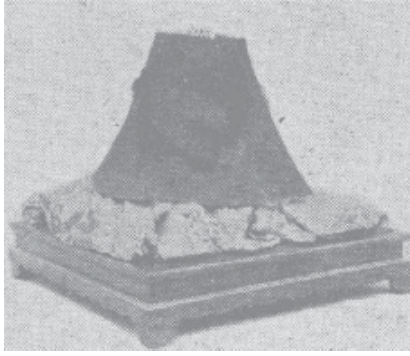


그림 6



그림 7

지금까지의 자료에 의하면 여진족으로부터 기원된 이러한 모자 양식은 대체적으로 금나라 말기부터 중원 지구의 한족 민중들 중에서 유행되기 시작하였다. 원나라 초기의 북방 무덤에서는 이와 유사한 이미지와 실물 자료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산서성 대동(大同) 풍도진묘(馮道眞墓, 1265년)에서는 등나무 줄기 만립 한 점, 시기적으로 조금 뒤인 왕청묘(王靑墓, 1297년)에서는 등나무 줄기 만립과 풀 만립이 각각 한 점씩 출토되었다<sup>15</sup>. 또한 섬서성 포성(蒲城) 동이촌(洞耳村) 벽화묘(1269년)에 그려진 벽화는 몽골국 시기의 북방 한족, 여진족과 몽골족 세 가지 문화가 융합된 상황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그림 6, 7 참조). 성씨과 본관으로 미루어 볼 때, 해당 묘지의 남녀 주인은 한족일 것으로 판단되나 그들은 몽골식 이름도 가지고 있었으며 벽화 속의 인물들도 모두 여진(좌임[左衽], 만립)과 몽골(요선오[腰線袄], 고고관[罍罍冠]) 풍격이 혼합된 복장 차림을 하고 있다. 이상의 상황으로 짐작하건대 일찍이 원나라 시기부터 만립은 이미 북방 여러 민족들의 중요한 일상 복장으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 남방 지역의 상황은 달랐다. 장기간 금나라와 대치하면서 거대한 군사적 압력에 직면하였던 송나라 조정은 유학 이론 중의 “화이지변(華夷之辨)”을 강력한 정신적 무기로 삼으면서 남송 사회의 민심을 집결시키고 일제히 외부 압력에 대항하였다. 이러한 관념은 남송의 사상문화(예를 들면 남송 사대부들의 교과서로 사용되었던 호안국[胡安國, 1074-1138]의 <춘추전(春秋傳)<sup>16</sup>>은 바로 오랑캐를 몰아내자는 “양이(攘夷)” 사상의 대대적인 표방을 특징으로 함)에 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서도 나타났다. 남송 조정과 사대부들은 타민족 풍속습관의 침투에 높은 경각성을 보였다. 소흥(紹興) 연간 시국이 금방 안정되었을 무렵, 송고종은 “아직

<sup>15</sup> 대동시문물진열관, <山西省大同市元代馮道眞, 王靑墓清理簡報>, <文物> 1962년 제 10기에 수록.

<sup>16</sup> 牟潤孫, <兩宋春秋學之主流>, <注史齋叢稿>에 수록, 中華書局, 2009, p69-87.

수복되지 못한 나라 땅을 생각하여 화하의 것(풍속)으로 오랑캐의 것을 되 바꾸고자” 일반 백성들이 “오랑캐의 음악과 춤을 즐기고 무릎 꿇고 술은 권하는 법을 따르는” 등 여진족의 오락 활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서를 내 렸다<sup>17</sup>. 그리고 금나라로부터 송으로 귀순한 “귀정인”들에 대하여서는 안치 해주는 동시에 “호복”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거듭 요구하였다<sup>18</sup>. 송효종 건 도(乾道) 4 년(1168), 누군가가 임안(臨安) 백성들이 “오랑캐 풍속”을 따라배 우는데 대하여 경고한 바가 있는데 이는 남송 사회 일상생활 속의 “화이” 관념을 반영하는 재미있는 기록이다.

臣僚言：“臨安府風俗，自十數年，服飾亂常、習為胡裝，聲音亂雅、好為胡樂。如插棹篋、不問男女，如吹鷓鴣，如撥胡琴，如作胡舞，所在而然。此皆小人喜新，初則效學以供戲笑，久習之為非，甚則上之人亦將樂之、與之俱化矣。臣竊傷悼，中原士民淪于左衽，延首企踵，欲自致於衣冠之化者，三四十年卻不可得，而東南禮義之民，乃反墮于胡虜之習而不自知，甚可痛也。……伏望戒敕守臣，檢坐紹興三十一年指揮，嚴行禁止，犯者斷罪，令眾自然知懼矣。”詔從之。<sup>19</sup>

역사 자료로 볼 때 금나라 복식은 확실히 남송에 대하여 일정한 영향을 미 친 것 같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러한 영향에 대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심지어 그들은 남송 복식이 “이미 북방 민족과 구별이 없을 만큼 거의 같아져 버렸다”<sup>20</sup>라고 하는데, 이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중국 남북방의 복식이 혼합되어 사실상 “동일”에 가까워진 상태에 이른 것은 최 소한 원나라가 강남 지역을 통일한 뒤, 즉 지리적으로 나아가 심리적으로 까지 화이의 경계선이 점차 소실되어버린 뒤의 일이다. 적어도 남송의 사 신들이 남긴 대량의 문헌으로 봤을 때, 의관복식의 거대한 차이는 여전히 송나라와 금나라 민중의 가장 직관적인 구별점이었다. 예를 들면, 건도 6 년(1170) 사신으로 파견되었던 범성대(范成大)는 도중에 개봉을 지나면서 본 것에 대하여 이렇게 적고 있다.

民亦久習胡俗，態度嗜好與之俱化。男子髻頂，月輒三四髻，不然亦間養餘發，作椎髻于頂上，包以羅巾，號曰“蹋鴟”，可支數月或幾年。村落間多不復巾，蓬辮如鬼，反以為便。最甚者衣裝之類，其制盡為胡矣。自過

<sup>17</sup> 馬端臨, <文獻通考> 권 310, 浙江古籍出版社, 2000, p2436 참조.

<sup>18</sup> 李之亮 교정, <宋史全文> 권 24 상, 黑龍江人民出版社, 2000, 하책 p1640.

<sup>19</sup> <咸淳臨安誌> 권 24, <宋元方誌> 제 4 책, 中華書局, 1990, p3775-3776.

<sup>20</sup> 劉復生, <宋代‘衣服變古’及其時代特征: 兼論‘肥妖’現象的社會意義>, <中國史研究> 1998 년 제 2 기, p88-89. 송나라 복식이 받은 북방 민족의 영향에 대한 논술로는 본 논문이 가장 상세하다.



淮已北皆然，而京師尤甚。惟婦女之服不甚改，而戴冠者絕少，多縮髻。<sup>21</sup>  
순희(淳熙) 병신년(1176) 북에 사신으로 간 주휘(周輝) 역시 금나라 통치 지역인 수양(睢陽)에 들어서서 본 풍경을 기록하기를:

入境，男子衣皆小窄，婦女衣衫皆極寬大……無貴賤，皆著尖頭靴，所頂之巾，謂之蹋鴟。<sup>22</sup>

이 시기 중국은 남북이 분열된 지 반세기 밖에 안되었지만 북방 민중의 복장과 머리 양식은 남방과는 이미 큰 차이가 생겨있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변화들은 범성대, 주휘와 같은 사신들이 남송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이었다는 것이다. 정치적 국경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화이”적 심리 방어선은 북방 민족의 복식이 남으로 전파되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인으로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원나라 때에 이르러서야 근본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만립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남송 말기에 이미 금나라와 몽골인들이 차지한 회하 이북 지역에서 유행되었으나 남송 본토에서는 그 영향력이 거의 미미하였다. 남송이 멸망한지 얼마 안 된 덕우(德祐) 2년(1276) 2월, 좌상 오견(吳堅) 등은 기청사(祈請使)의 신분으로 몽골에 파견되었다. 황하를 건너 금나라 통치 지역이었던 옛 비주(邳州)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그 곳부터는 사람마다 갓을 썼고 의관이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였다<sup>23</sup>. 그러나 몽골이 남송을 정복함에 따라 원래 지역적이고 이족적인 색채를 지녔던 만립은 신속하게 남방에서 전파되기 시작하였으며 유행 패션으로 자리 잡았다. 송렴(宋濂)이 남송 유민이자 무주(撫州)의 선비였던 이사화(李士華)를 위해 쓴 묘지명에서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會宋亡為元，更易方笠、窄袖衫，處士獨深衣幅巾，翱翔自如，人競以為迂。處士笑曰：“我故國之人也，義當然爾”。<sup>24</sup>

고국의 의관 양식 바꾸기를 끝까지 거부했던 이사화와 같은 경우는 아주 소수의 유민들에 불과했다. 반면에 적지 않은 사대부들은 벼슬길에 오르기 위하여 갓(만립)을 쓰고 북방 민족의 복장을 착용하는 것을 몽골 정복자들에게 대한 순복의 표시로 삼았다. 강남이 평정된 초기, 몽골 조정은 문인 호장유(胡長孺, 1249-1323)를 수도로 불러들였는데, 전하는데 의하면 그는 갓을 쓰고 갔다고 한다. <농전여화(農田餘話)>에는 재미나는 일화가 있다.

<sup>21</sup> 范成大, <攬轡錄>, 孔凡禮 교정본 <宋代日記叢編>에 수록, 中華書局, 2002, p12.

<sup>22</sup> 周輝, <北轅錄>, 顧宏義 교정본 <宋代日記叢編>, 上海書店出版社, 2013, p1134.

<sup>23</sup> 嚴光大, <機請使行程記>, 王瑞來 <錢塘遺事校箋考原>, 中華書局, 2016, p331.

<sup>24</sup> 宋濂, <北麓處士李府君墓碣>, 黃靈庚 교정본 <宋濂全集> 권 69, 人民文學出版社, 2014, p1647.

趙文敏孟頫、胡石塘長孺，至元中有以名聞於上，被召入。見問文敏：“會甚麼？”奏曰：“做得文章，曉得琴棋書畫。”次問石塘，奏曰：“臣曉得那正心、修身、齊家、治國、平天下本事。”時胡所戴笠相偏欹，上曰：“頭上一個笠兒尚不端正，何以治國平天下！”竟不錄用。<sup>25</sup>

야사의 이야기라 역사적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갓을 쓰는 것이 원나라 당시의 강남 지역에서 한 시기를 풍미했다는 사실은 알 수 있다. 지순(至順) 연간 간행된 일용서적 <사림광기>에 이르기를, “갓은, 옛날에는 외국에서 생긴 것이나 오늘날에는 백성들이 모두 쓰고 다닌다”<sup>26</sup> 라고 하였다. 이미 지 자료로 봤을 때에도 만립을 쓰는 것은 민족이나 사회적 신분의 제한이 없었다. 원나라 문학가 우집(虞集, 1272-1348)은 그 전해져 내려오는 초상화(그림 8 참조)에서 머리에 검은 만립을 쓰고 있다. 그런가 하면 원나라 말기의 소령에서는 장사성(張士誠)의 막부문인을 풍자하기를 “까만 머리채 뺏뺏이 묶었고, 머리에는 네모꼴 모자 썼네(皂羅辨兒緊紮梢，頭戴方檐帽)”라고 하였다<sup>27</sup>. 또한 복건성의 장락양씨가족벽화(將樂楊氏家族壁畫)에 등장하는 마부 역시 같은 유형의 갓을 쓰고 있다(그림 9 참조).

<sup>25</sup> 長谷眞逸, <農田餘話> 권 2, <四庫全書存目叢書> 子部 제 239 책, 제 p333-334.

<sup>26</sup> <事林廣記> 後集 권 10, <續修四庫全書> 제 1218 책, p373.

<sup>27</sup> 瞿佑, <歸田詩話> 하권, 喬光輝, <瞿佑全集校注>, 浙江古籍出版社, 2010, p473.



그림 8

그림 9

그림 10

만립의 유행은 원나라 말기까지 계속 이어졌으며 심지어 황제마저도 그 유혹을 거절하지 못했다. 현존하는 원나라 황제들의 초상화 중에서 발립(鍔笠)을 제외하고 만립을 착용한 것들도 있다. 명나라 사람이 원나라 주량(周朗)의 <천마도> 속 원순제를 모사한 그림을 보면, 원순제가 끝이 뾰족한 만립을 쓰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그림 10 참조). 만립이 유행했던 지역은 중국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몽골 대군의 정복 활동과 더불어 아시아 각 지역에까지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다.

10세기부터 고려는 전후로 요나라와 금나라와 국경이 맞닿아 있으면서 자주 내왕이 있었다. 비록 고려는 무력의 핏박에 못 이겨 부득이하게 두 북방 민족 정권에 조공을 바치고 신하로 순복하였다. 그러나 문화적으로는 후세 조선의 “소중화주의”와 비슷한 태도를 취하면서 중원의 문명은 주동적으로 받아들였으나 초원 민족의 풍습이 침투되는 것은 가급적으로 피하려고 하였다. 고려 태조 왕건(877-943)은 남긴 유명한 “훈요십조” 중의 한 조항은 이렇게 당부하고 있다.

我東方舊慕唐風，文物禮樂，悉尊其制……契丹是禽獸之國，風俗不同，

言語亦異，衣冠制度，慎勿效焉。<sup>28</sup>

<고려사>에 기록된 이 대목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서는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속에 고려 문화 계층의 “모화(慕華)” 의식이 내포되어 있음은 어렵잖게 알 수가 있다. 고려 말의 문신 조준(趙浚, 1346-1405)은 고려 의관의 변천을 총괄하면서 말하기를 “조상의 의관과 예악은 모두 당나라 제도를 따랐으나 원나라 때에 이르러서는 왕의 압력으로 말미암아 중화의 것을 오랑캐의 것으로 바꾸었다”라고 하였다<sup>29</sup>. <고려사>에 기록된 여복제도는 상당 부분 당과 송의 제도를 혼합한 것이었다. 북송 말기의 사신 서공은 고려에서의 견문을 기록하면서 이르기를:

(高麗) 唐初稍服五采.....逮我中朝，歲同信使，屢賜襲衣，則漸漬華風，被服寵休，翕然丕變，一遵我宋之制度焉，非徒解辮削衽而已也。<sup>30</sup>

하지만 유가문화의 영향 하에서 발생한 고려의 이러한 “화이” 관념과 의관에서의 “모화” 정책은 원나라 때에 이르러 철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고려는 몽골의 침략에 대하여 아홉 차례에 이르는 치열한 저항전쟁을 진행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게 되어 몽골의 세계질서에 편입되기에 이른다. 비록 쿠빌라이가 고려는 관복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고 허락하였으나 고려 충렬왕(1274-1308 재위)은 몽골제국의 부마로서 철저한 귀순을 표명하기 위하여 직접 “머리채를 따고 호복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1278 년에 조서를 내려 전국 백성들이 몽골 복장을 입도록 명하였다.

令境內皆服上國衣冠，開剃。蒙古俗，剃頂至額，方其形，留發其中，謂之開剃。<sup>31</sup>

명이 떨어지자 “나라의 재상으로부터 하층 관료에 이르기까지 머리를 깎지 않은 자가 없었으며” 유생들도 이를 피해 갈 수 없었다. 고려가 어찌나 철저하게 복장의 몽골화를 실행하였던지 쿠빌라이마저도 듣고 놀랄 지경이었다고 한다.

(世祖) 因問(高麗人) 康守衡曰：“高麗服色何如?”對曰：“服韃靼衣帽。

至迎詔賀節等時，以高麗服將事。”帝曰：“人謂朕禁高麗服，豈其然乎！汝國之禮，何遽廢哉！”<sup>32</sup>

충렬왕 16 년(1289), 고려의 유신 정가신(鄭可臣)이 머리채를 따고 갓을 쓰

<sup>28</sup> <高麗史> 권 2 <太祖二>, 臺北文史哲出版社, 2012, 제 1 책 p26.

<sup>29</sup> 趙浚, <松堂集> 권 3, <韓國文集叢刊>, 제 6 책 p425.

<sup>30</sup>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 권 7, <冠服>.

<sup>31</sup> <高麗史> 권 72 <輿服>, 제 2 책, p476.

<sup>32</sup> <高麗史> 권 28 <忠烈王一>.

고 원세조의 면전에 섰는데 원세조가 보기에도 이러한 기마 복장이 유생의 신분과 어울리지 않아서 “갓을 벗으라고 명하였으며” “수재들은 머리를 딸 필요가 없고 수건을 두름이 합당하다”라고 하였다고 한다<sup>33</sup>. 그러나 이러한 사실도 여전히 고려에서의 만립의 유행을 막지 못하였다. 고려말 공민왕, 우왕 시기, 만립(방립)은 심지어 관원(대언반주[代言班主] 이상은 전부 검은 색 초방립을 착용)들과 각 부서의 서리(흰색 방립 착용)들의 공식 관복으로 되기까지 이르렀다<sup>34</sup>.



그림 12



그림 11

몽골 정복자들은 만립을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에까지 가져갔다. 고창(高昌) 옛 성터에서 출토된 회화문 각본 불본생(佛本生) 이야기 삽도에는 원본의 인도 인물들이 모두 만립을 쓰고 있고, 14세기 초 일칸국(伊利汗國) 역사학자 라시드(拉施特)가 편찬한 <사집(史集)>에 보면 만립을 쓴 몽골 군왕의 형상(그림 12 참조)이 출현한다. 원래 여진 복식이었던 만립은 몽골인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후 몽골 기병들의 발자취를 따라 아시아의 각 지역에 전파되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는 몽골의 정복 활동이 정권, 민족과 문화의 장벽을 허물어 버린 상징물과도 같은 존재라고 할 수도 있겠다.

<sup>33</sup> <高麗史> 권 105 <鄭可臣傳>.

<sup>34</sup> <高麗史> 권 71 <輿服一>.

#### 4. 장벽의 증축: 만립의 소실과 동아시아 “화이” 관념의 변천

14 세기 후반 원 제국의 멸망과 함께 부동한 민족 간의 자유로웠던 문화융합의 역사는 그 짧은 운명을 다하게 된다. 원 제국의 폐허 위에서 더욱 뚜렷해진 것은 서로 다른 정권 사이의 국경뿐만이 아니었다. 서로 다른 민족 사이의 문화적, 심리적 경계선 또한 다시금 분명해지게 되었다. 새로 건립된 명 제국은 외부로는 북원의 군사적 압력을, 내부로는 정권의 합법성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유가의 “화이지변” 기치를 재차 표방하는 것으로서 문화적으로는 “화하로 오랑캐를 되바꾸고”, “중국 선왕의 옛 것(제도)를 회복한다”라고 선포하면서 “몽골화 제거” 운동을 전개해 나갔으며 이로써 정권의 정통성을 확립하고자 하였다<sup>35</sup>. 이러한 정치적 문화적 급변 상황은 동아시아 세계에서 빠른 파급력을 가지게 된다.

홍무 원년의 호복 금지령에서 알 수 있다시피, 명나라가 새로 제정한 복식 제도는 당나라의 제도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의관을 바꾼다는 것은 “머리를 밀고 풀밭에서나 뛰어다니기 편한 낙후한 풍격을 버리고” “특히 당나라의 풍속을 존중하고 사모하는 것”이었다. 정부 역시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민간의 풍속을 선도하여 “함께 옛것을 회복하는 풍조를 이루고자 하였다”<sup>36</sup>. 만립과 기타 금, 원의 북방 유목민족 복식과 머리 양식은 “원나라 오랑캐”의 말 잔등 위의 습관, “사치스럽고 거친” 풍속의 일부로 간주되어 금지되거나 혹은 일부 특수한 장소에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제한되었다. 이렇게 금하고 나서 만립은 명나라 시기의 이미지 자료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된다. 특별히 지적하여야 할 것은, 일부 연구소에서 “명나라” 만립이라고 인용하고 있는 소수의 이미지는 자료의 연대를 잘못 판단한 것(<보녕사명대수륙화[寶寧寺明代水陸畫]> 등, 그림 13 참조)이 아니면 명나라



그림 13

<sup>35</sup> 이 분야에 관한 내용으로는 줄고 <新天下之化: 明初禮俗改革研究>(復旦大學出版社, 2014)를 참조할 수 있다.

<sup>36</sup> 劉夏, <劉尚賓文續集> 권 4, <續修四庫全書>, 제 1326 책, p155.

때 중간된 원나라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효미 [李孝美]의 <묵보[墨譜]> 만력 중간본 등, 그림 14 참조)으로서 이러한 이미지들은 명나라 때 사회생활의 실상을 반영할 수 없으며 연구자들을 “그림으로 역사를 증명하는 함정”에 빠뜨리기 십상이다<sup>37</sup>.



그림 14

아래의 이야기는 호복 금지령이 반포된 지 백여 년 후, 만립이 명나라 사람들에게 이미 상당히 낯선 존재가 되었음을 말해주는 사례이다. 홍치(弘治) 원년(1488), 조선의 관원인 최부(崔溥)가 풍랑에 떠밀려 중국 절강 바닷가에 닿았는데 마침 상중이라 머리에 “심립(深笠, 즉 만립으로서 조선 시대에는 상복으로 발전되었음)”을 쓰고 있었고, 이 기이한 모습은 금방 중국인들의 이목을 끌게 되었다.

(桃渚所千戶陳華) 與一官人來看臣, 指臣笠曰: “此何帽子?” 臣曰: “此喪笠也。國俗皆廬墓三年, 不幸如我漂流, 或不得已有遠行者, 則不敢仰見天日, 以堅泣血之心, 所以有此深笠也”。<sup>38</sup>

명나라 사람들은 최부가 쓰고 있던 챙이 깊고 얼굴을 많이 가리는 것에 대하여 호기심을 보였으며 그는 부득이하게 누차 자세히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백여 년 전에만 해도, 만립은 다시금 중국 강남 지역에서 유행되었으며 위로는 사대부로부터 아래로는 마부와 노복들에 이르기까지 널리 애용되었다. 이 사례는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정권이 바뀌면서 만립은 명나라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사라졌음을 말해준다.

원 제국이 붕괴된 후, 만립은 조선반도에서도 역시 중국에서와 비슷한 운명을 맞이하였다. 고려 말에 대두된 국가 독립의식의 발전과 동시에 명나라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고려 말 조선 초의 조선반도에서도 역시 “호복” 금지 운동이 일어났다. 명나라는 “복고”를 구호로 복식 개혁을 진행하였고 고려 유신들은 이를 “화하문명” 부흥의 표징으로 받아들였다. 고려는 명나라와 종번(宗藩) 관계를 수립해나가는 과정 중에서, 수차례나 “대명 의관” 제도를 가져다 쓸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로써 “모화”의 의사를 표출하였다. 동시에, 원나라 복식을 철폐하고 명나라 의관 제도를 접수하는 것은 고려 내부에서도 “(고려) 조상의 강성함을 되찾는” 특수한 의미가 부여되기도 하

<sup>37</sup> 역사 연구 중 이미지 자료 사용 상의 주의점에 관하여서는, 繆哲, <以圖證史的陷井>(<讀書> 2005년 제2기에 수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sup>38</sup> 崔溥, <漂海錄>, 葛振家 교정본, 線裝書局, 2002, p62.

였다<sup>39</sup>.

고려 공민왕 시기, 만립은 한 때 “대언반주” 이상 고관들의 공식 관복으로 제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선 왕조는 명나라 제도를 따라배워 복식 체계를 건립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만립은 “향리” 계층의 일상복으로 규정되었다<sup>40</sup>. 조선 초기에 규정에 따르면, 향리는 한량 중에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관리들 중 향리만 고려식 복식을 유지하고 새 정권의 관복 제도에 포함시키지 않았는 바, 이는 향리가 멸시의 대상이었음을 알려준다. 명나라 초기에도 환관들에게는 몽골식 “일탑두(一塔頭)” 머리를 깎도록 하고 아전들더러는 깃털모자를 쓰도록 명하였는데 이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하여 조선 성종 3년(1472), 예조에서 평안도 향리들도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로 <경국대전>에 따라 “흑죽방립(黑竹方笠)”을 쓸 것을 요구하였을 때, 평안도에서 이를 견결히 거부하였다.

平安道江西縣吏康翰等上言啟：“本道諸邑鄉吏，率以良民假屬，故並著草笠，其來已久，不可依他道例著方笠，請仍舊”。從之。<sup>41</sup>

“양민” 출신의 향리마저도 비천한 지위의 상징이었던 만립을 착용하기를 거부하였으니 사대부들은 오죽하였으랴. 그리하여 사대부들은 최후의 경우처럼 상중이라 외출 시 상복을 입기가 불편할 때에야 심침만립을 쓰는 것으로 “하늘도 감히 쳐다보지 못하면서 피눈물 나는 마음을 다지는” 마음을 대변하였다. 더불어 조선에서 만립은 점차적으로 외출 시에 입는 임시 상복으로 변모하여 갔다. 효종 때, 허적(許積)은 왕과 관복 제도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이르기를 “전에 (고려) 사대부들은 사각립을 썼는데 이는 오늘날 상중에 쓰는 방립이다”<sup>42</sup>라고 하였다.

고관의 관복에서 편의를 위한 상복에 이르기까지, 만립의 지위는 일락 천장으로 곤두박질쳤다. 그뿐만 아니라 조선 선비들의 “소중화” 의식이 부단히 강화됨에 따라 만립은 상복으로서의 자격조차 잃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정묘와 병자 호란을 거친 뒤, 학자들은 만립의 유래와 상복으로서 적합한 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정경세(鄭經世, 1563-1633)는 “평량립(平涼笠)”으로 “금나라 오랑캐 복장”인 방립을 대체할

<sup>39</sup> 고려에서 명나라 의관 제도를 접수하고 “호복” 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 관하여서는, 졸작 <衣冠與認同: 明初朝鮮半島襲用‘大明衣冠’歷程初探>(<史林> 2017년 제1기)을 참조할 수 있다.

<sup>40</sup> 조선총독부 중추원 간행본 <經國大典> 권 3 <禮典·儀章>, 1934, p231.

<sup>41</sup> <成宗大王實錄> 권 21, 성종 3년 8월 정축일, 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朝鮮王朝實錄>, 1968, 제 8책, p680; 권 26, 성종 4년 정월 임인일, <朝鮮王朝實錄>, 제 9책, p2.

<sup>42</sup> <孝宗大王實錄> 권 18, 효종 8년 정월 임진일, <朝鮮王朝實錄>, 제 36책, p74.



지 여부에 대한 학자들의 질문에 답변할 때, 상중 외출 시에도 상복을 입는 것이 마땅한 바 간편을 도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sup>43</sup>. 이광정(李光庭, 1674-1756)의 의견은 비교적 모호하여 “방립이 비록 금나라 오랑캐의 복장이기는 하나 옛 유학들도 상중에 방립을 쓰고 출입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면서 “굵은 베옷과 새끼 띠 차림으로는 길을 다닐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행하는 조치라고 하였다<sup>44</sup>.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의 경우는 견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方笠是金人之服，麗末宰相戴之，我朝中葉胥吏戴之，今則為喪人所著。

其制尤為怪駭。東國喪服粗具禮制，而頭著虜笠，不可不改正者也。<sup>45</sup>

“금나라 오랑캐”로부터 전해진 만립은 민중의 일상생활에서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화이 사상의 작용 하에 편의용 상복으로서의 지위마저도 도전과 반대를 받았다. 이는 원나라 시기 상하할 것 없이 애용되면서 유행을 휩쓸었던 상황과 비해 볼 때 형편없이 추락되어 버린 것이었다. 만립의 중국과 조선반도에서의 유행, 쇠락과 소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식인들 머릿속의 화이 관념의 모호, 대두와 강화에 이르는 흐름을 보여주는 풍향계이기도 하다.

## 5. 결론: 작은 물품과 큰 역사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오랫동안 “와릉모”로 잘못 불렸고, 전형적인 몽골 복식으로 여겨져 왔던 만립은, 사실 여진족에서 기원한 모자 양식이었음이 밝혀졌다. 비록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그 유행의 변천사는 하나의 상징물과도 같아서, 12-14 세기 동아시아 여러 민족들의 정치 형세의 변화 및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의 “화이”, “호한” 관념의 변천 과정을 직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농후한 북방 유목민족의 풍격을 지닌 만립은 금나라 말기부터 이미 중원의 민중들 사이에서 유행되었다. 하지만 송나라 왕실이 남방으로 천도한 뒤, 중원의 옛 지역은 남방 사대부들에게 문화적 타향으로 간주되었으며, 의관과 풍속 면에서 “화이지변” 의식을 강조하여 만립의 남으로의 전파를 억제하였다. 고려는 요나라, 금나라와 변경이 닿아있었으나 문화적으로는 “모화”의 태도를 취함으로써 유목민족의 복식을 멀리하였다. 13 세기 몽골인의 정복 활동은 동아시아 각 정권 사이의 지리적 변경을 무너뜨렸을 뿐만

<sup>43</sup> 鄭經世, <愚伏集> 권 11 <答金伯溫問目(戊午)>, <韓國文集叢刊>, 제 68 책, p209.

<sup>44</sup> 李光庭, <訥隱集> 권 5 <答辛與則(師錫)問目>, <韓國文集叢刊>, 제 187 책, p223.

<sup>45</sup> 李德懋, <靑莊館全書> 권 61 <論諸笠>, <韓國文集叢刊>, 제 259 책, p94.

아니라 각 민족 사이의 문화적 장벽도 허물어 버렸다. 하여 만립은 몽골 기병의 발자취와 함께 아시아 각지로 널리 전파되었다. 화이 관념의 약화와 더불어 풍조과 이익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북방 민족의 의관은 강남 지역에서 유행을 주름잡는 패션으로 부상하였다. 고려의 경우는 상하 모두가 급진적으로 “몽골화”를 진행하는 방식으로써 “타타르 복식”을 접수하였다. 바로 이러한 정치적, 사상적 배경 속에서 만립은 동아시아에서 한 시대를 풍미하였다. 몽골제국의 붕괴는 각 민족 문화의 자유융합 시대의 종결을 의미한다. 날로 강화되는 화이 사상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만립은 점차 민중들의 일상생활에서 사라져 역사 속의 먼 흔적으로 변해버렸으며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이미지 자료의 연대를 판정하는 척도로 되었다(그림 17, 18 참조). 작은 만립 하나가 몽골제국의 전후 정치와 문화 거대한 변천을 대표하는 축소판 사서가 된 것이다.



그림 15



그림 16

### 이미지 설명

- 그림 1: <打雙陸>. 元至順刊<事林廣記>속집 권 6, <續修四庫全書> 제 1218 책.  
 그림 2: 일본 復明洪武四年刊本<魁本對相四言雜字>. <和刻本中國古逸書叢刊>제 15 책.  
 그림 3: <張卿子像>. 曾鯨 그림.  
 그림 4: <女眞樂舞圖>. <金代樂舞雜劇石刻的新發見>, <文物> 1991년 제 12기.  
 그림 5: 大安 2년 侯馬董玘墓의 벽돌 조각화. <平陽金墓磚彫> 중에서 발채.  
 그림 6: <醉歸樂舞圖>. 섬서 포성 동이촌 원나라 묘지 벽화(至元 6년), <中國出土壁畫全集> 제 7 책.  
 그림 7: 王青墓 출토 등만립. <山西省大同市元代馮道眞王青墓清理簡報>, <文物> 1962년 제 10기.  
 그림 8: 虞集像. 원나라 작가 미상 <名賢四像>, <元畫全集> 제 4권 제 5책 중.  
 그림 9: <人物輜輿圖>(부분). 복건 將樂楊氏家族壁畫, <中國出土壁畫全集> 제 10 책.

- 그림 10: 周朗 <天馬圖>의 명나라 사람 모사본. <故宮藏品大系·繪畫編> 제 5 책.
- 그림 11: 원나라 회흘문 각본 佛本生 이야기 삽화 잔본.
- 그림 12: <史集> 삽화 중의 몽골 군주.
- 그림 13: <誤死針醫橫遭毒藥嚴寒衆>(일부). <寶寧寺明代水陸畫>에서 발췌.
- 그림 14: <和制>. 만력 중간본 李孝美의 墨譜 삽화 중.
- 그림 15: 원제 <宋佚名百子圖>(일부). <宋畫全集> 제 6 권 제 2 책.
- 그림 16: 원제 <道子墨寶·地獄變相圖>(일부). <宋畫全集> 제 6 권 제 2 책.